# “마음건강 산업에 앞장설 터”

## 통도사 마인드케어 과정 개설

통도사에 국가등록민간자격증 과정인 마인드케어지도사 과정이 시범운영된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는 현대인들의 맞춤형 심신치유와 치유전문가 양성을 위한 ‘영축마인드케어평생교육원(이하 영축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 마음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11월에 설립한 영축평생교육원은 2013년 1월 17일에 개강 예정인 ‘마인드케어지도사 1기 과정’을 시작으로 기존의 포교사 과정과 차별화한 평생교육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이다.

영축평생교육원 학장 명본 스님은 “이 프로그램은 현대인들의 각종 스트레스와 갈등을 ‘맞춤형 마음건강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국민건강과 국가행복지수 상승을 주도할 마인드케어 전문지도사를 양성해 ‘불교적인 마음산업’ 선도를 목표로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영축평생교육원은 마음건강 전문연구소인 싸띠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음건강, 몸건강, 명상 분야의 20여 명의 전문강사들을 지원 받는다.

통도사는 영축평생교육원이 기존의 템

**체험 위주의 마음 치유 과정**
**마인드케어지도사 과정 개설**
**교계 최초 민간자격증 발급**
**불교 명상 대중화에 기여**

플스테이나 불교교양대학과는 그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명본 스님은 “휴식과 체험 위주의 템플스테이나 교리 공부에 집중된 교양대학과는 달리 마음치유의 실질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체험을 통해 치유방법을 익히는 과정이다. 또한 본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일정 시험을 통해 국가등록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교육프로그램은 △불교계 최초 국가등록민간자격증인 마인드케어지도사과정 △스님들을 위한 마인드케어지도사특별과정 △신도리더십스쿨 △까야싸띠 명상체조교실 △대학생 Self-leadership캠프 △청소년겨울캠프 △힐링캠프 △시민기자스쿨 △교사직무연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마인드케어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향후 기업체, 학교, 군부대 등에서 마인드케어 전문강사로 진출할 수 있다. 명본 스님은 “미래 핵심산업의 한 분야인 마인드테크놀러지(Mind-Technology)산업의 조기진출로 불교명상의 사회화, 산업화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인드케어지도사 1기 과정은 1월 17일 개강 예정이다. (055)382-7182

박경수 부산지사장

# 창원시불교聯 시민불교문화상 시상식

## 대상에 정일근 경남대 교수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지태스님)는 12월 17일 창원 사보이호텔에서 ‘제22회 향기로운 시민불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시민불교문화상 문학상은 정일근 경남대 기초교양교육부 교수, 예술상은 이근택 창원대 음악과 명예교수, 행원상은 내서종합사회복지관장인 진흥스님), 특별상은 팔용산 돌탑 축조자인 이삼용 씨가 각각 선정됐다.

문학상의 정일근 교수는 지난 198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이후 시집 ‘바다가 보이는 교실’, ‘사과야 미안하다’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다. 또한 지훈문학상 · 이육사문학상 등을 수상하는 등 문단과 학계에서 작가적 기량과 작품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창작지원금 500만 원과 상패가 각각 수여됐다.

시민불교문화상은 지역문화 발전을 꾀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991년부터 창원불교연합회에서 제정하고 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동지 맞아 이웃사랑 ‘훈훈’

**원오사 – 이대호 선수 장학금 전달**
**진여원 – 팥죽 3천인분 제공**
**보성선원 – 자비의 팥죽나누기**

동지를 맞아 지역에서 훈훈한 자비나눔 행사가 이어져 눈길을 끈다. 사진 왼쪽은 이대호 선수의 부산 원오사 장학금 전달, 사진 왼쪽은 대구 보성선원의 팥죽전달식.

동지를 맞아 지역에서 훈훈한 자비나눔 행사가 이어져 눈길을 끈다. 부산 반송 원오사(주지 정관)에서는 국민타자 이대호(오릭스 바팔로스)선수가 12월 21일 동지 법회를 맞아 저소득 가정 후원을 위한 장학금 2,62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통도사 극락암 명정 스님, 배덕광 해운대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대호 선수는 매년 동지 법회 때마다 원오사를 찾아 보시 행을 실천하고 있다.

부산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은 12월 21일 구포시장 쌈지공원에서 자비의 팥죽나눔 행사를 가졌다. 시장 상인들과 지역민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팥죽 3천인분을 제공했다. 진여원은 지난 18년 동안 동지 때마다 팥죽나눔 행사를 가져왔다.

대구의 (재)선학원 보성선원에서는 12월 20일 송현 1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270가구에 ‘자비의 팥죽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팥죽 전달식에는 이태훈 달서구 부구청장, 김주범 · 김철희 달서구의회 의원과 송현 1동 통장 및 봉사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22일 동짓날에는 500여 명의 지역민들에 팥죽을 나눠주었다. 올해로 3회째로 맞는 보성선원의 팥죽행사는 매년 100여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박경수 부산지사장

# 성탄절, 종교간 화합 ‘눈길’

## 동화사, 천주교 대구대교구청 방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구지역 불교와 천주교가 종교간 화합을 다졌다.

조계종 제 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은 12월 18일 천주교 대구 대교구청을 방문해 조환길 대주교에게 ‘축 성탄’이란 메시지가 적힌 화환을 전달하며 예수님 탄생을 축하했다.

이 날에는 동화사 사회국장 효신스님과 류병선 9교구 신도회장, 천주교 대구대교구 이용길 총대리신부와 김종해 평신도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크리스마스와 동지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덕담을 주고 받기도 했다.

동화사는 동짓날인 21일에는 사찰에서 만든 팥죽을 천주교 대구대교구에 전달할 것을 약속한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조환길 대주교가 동화사를 방문해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등 동화사와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매년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상호 방문을 통해 화합을 다지고 있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대구 대교구청 방문

손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 작은 봉사에도 ‘삼보공경’을

예로부터 사찰의 불사는 과학, 기술, 예술을 총망라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당해 시대에 살았던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불사를 맡김으로써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찰은 세계 어느 나라의 사찰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작품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불사를 담당한 이들의 뛰어난 기술력과 예술성에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불사의 주관자인 스님들과 불사를 후원했던 신도들의 지극한 기도와 정성 또한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불사는 교단을 구성하는 불법승 삼보를 모시기 위한 것이므로 불자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하고 귀중한 일이다. 따라서 불사를 담당하는 기술자나 예술가들은 돌 하나 놓고 절 한번 하고, 기둥 하나 세우고 절 한번 하고, 글자 한 자 새기고 절 한번 하는 지극정성의 자세와 불사이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몰입의 경지를 기본적인 덕목으로 갖춰야 한다. 또한 불사를 주관하는 스님들은 불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마무리되기까지 온 정성으로 불사의 원만성취를 기원하는 원력과 정재를 모으기 위해 온몸을 바치는 신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불사를 후원하는 신도들은 불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아낌없이 내 것을 내놓는 건강한 무주상보시의 정신과 삼보에 대한 끝없는 공경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지난날에도 그러했지만 지금도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는 끊이지 않고 이런저런 불사가 일어나고 있다. 예전에 비해서 불사의 종류도 다양해져서 불사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과거에 그랬듯이 지금도 불사를 진행하는 전문가들과 스님들 그리고 신도들은 지극한 정성과 신심을 가지고 불사에 매달린다. 그러나 전문성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불사를 한다든지 정성과 신심이 결여된 불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규모가 큰 불사에는 지극정성을 다 기울여야 하고 작은 불사는 대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절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법승 삼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므로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작은 것까지도 온 정성을 다해서 이루어내는 불사의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덧붙여 불교교단에서 운영하는 불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품격과 의미가 제대로 담긴 불사를 진행하는 것 또한 시급한 일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전라북도 ㅂ사찰에 시공해놓은 석단을 보면 배수를 위해서 설치한 검정색 플라스틱 주름관이 노출된 것을 볼 수 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과거 사찰에서 볼 수 있었던 석루조라는 아름다운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을 것이다.


WORLD BUDDHISM LEADER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과 연방승가회의
지원 아래 고승 및 원로 수행 일정을 종교성내
불교대학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께서
역시 그 분이라면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500인 선정 발기 협의회 / 1차 108인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선정
(종사, 대종사 급만 동참 가능)

법하께서도 추진위원회 발기인으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모든 스님 누구나 동참 자격이 있습니다.

심사 후 우선 세계불교와 한국 불교 승가 정화 차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출가 의식을 초발심의
행자로 돌아가 1주일간 종단불문, 법납, 속납 까지 불문하여 남방불교의 연방승가회 스님들의
지도하에 종교성의 불교대학에 입소하여 단기수행을 완료한 스님 중에
우선 108명의 고승 및 원로 큰스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 보십시오.
한 평생 부처님의 은덕으로 수행해 온 큰스님들께서 앞장서 후학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신다면 한국 불교사에 새로운 역사와 기운이 샘솟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만이 추대위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성 장관과 불교 수호 지도자협회 우킨쉐이의 박수와 격려속에 구족계 및 품수식도 함께 봉행합니다.
108분의 고승 및 중진 스님들께서 500인 추대위원을 심사 위촉하게 됩니다.

구족계 자격자
1. 구족계 자격 : 한국의 모든 종단소속 비구 스님.
2. 법납이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출가승에 한함.
3. 30명 한정 선착순 접수

종사 대종사 품수식
1. 법납 25년 이상 : 종사
2. 법납 30년 이상 : 대종사
* 1차 서류 심사후 면접 2차 : 심의의원회 최종심사

최종 추대되신 큰스님 명단을 불교계 신문에 사진과 함께 공고합니다. (추대 의식 봉행일 추후 발표)

신청기간 : 2012년 12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
출발일시 : 2013년 2월 28일 (음력 정월 19일) 6박 7일간 소승불교 체험 수련 정진

법납, 속납 일체 평등하고 대우 및 예우 일체 없음
구족계 수계자 전원 종교성 불교대학에 입소 구족계 봉행
남방불교 전통의 불명수여. 수행 결사 (위빠사나, 발우공양 예불의식) 체험
일 시 : 2013년 2월 28일 ~ 3월 7일까지 (1주일간) 봉행 행사 이후 한국에서 재 추대행사 계획

미얀마 연방 승가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 鐸 – 慧 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팩스 02)733-5671